

2024. 3. 12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12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정보통신보안담당관	김완집	02-2133-2860
CCTV안전센터 운영TF팀장	모형률	02-2133-5049
담 당 자	우다형	02-2133-5050
누 리 집	<a href="https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39646">https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39646</a>	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: 4쪽

## 서울시 CCTV안전센터, '지자체 최초' 정보보호 분야 인증 획득

- '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' 인증받아... 정보 안전성·신뢰도 제고 노력한 결과
- ISMS 16개 분야, 80개 항목 심사 및 검증 거쳐 전국 지자체 최초 인증 획득
- 작년 25개 자치구 연계 완료, 올해부터 '광역CCTV 통합 컨트롤타워' 본격 기능
- '23년 한 해 자료 282만 건 제공, 수사 등에 도움... 시스템·보안 지속 고도화

서울시는 「서울시CCTV안전센터(이하 'CCTV안전센터)」가 전국 지자체 최초 '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'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 시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자산 취약점 분석, 위협 요소 제거 등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집중해 온 결과다.

- 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이 인증하는 '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'는 △관리체계 기반 마련 △위험관리 등 16개 분야에서 기업·기관의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 및 활동을 검증하는 제도다.
- 시는 앞서 '20년 서울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3개 웹사이트에 대한 '정보보호·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-P) 인증'을 획득(한국인터넷진흥원)한 바 있다.

- 2019년 개소한 ‘CCTV안전센터(마포구 상암동)’는 시·구를 포함하여 경찰청, 소방청, 법무부, 행안부 등 유관기관 CCTV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. 지난해 말에는 25개 모든 자치구의 CCTV 연계가 완료되면서 올해부터는 ‘광역CCTV 통합 컨트롤타워’ 역할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.
  
- 시는 이번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‘CCTV 안전센터’에 수집되는 CCTV 영상을 해킹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작년부터 정보자산 컨설팅, 위협평가, 내부감사 등 강도 높은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쳤다.
  - 특히 정보자산 취약점을 집중 분석·평가하고 보안 위협 요소를 제거해 정보보호 시스템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수립했다.
  
- ‘CCTV안전센터’는 ‘23년 한 해, 범죄 예방·수사 등을 위해 경찰서 등 6개 기관에 총 282만 건의 영상을 제공했으며, 지난해 5월에는 ‘마약’ 관련 특별 CCTV 관제를 추진해 최근까지 영상 145건을 제공 및 처리, 16건을 검거를 도운 바 있다.
  - 방법·재난·구급·군작전 등을 비롯해 긴급상황 시 CCTV를 통한 상황 파악과 대응도 지원하며, 공공 와이파이·사물인터넷(IoT) 등 각종 스마트시티 시설과 장비 통합운영센터 역할도 하고 있다.
  
- 시는 인공지능(AI) 기술을 기반으로 미아, 치매어르신 등을 찾는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등을 비롯해 앞으로 ‘CCTV안전센터’ 시스템 및 정보보호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.

- 김완집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“서울시CCTV안전센터는 ‘26년 지능형 CCTV 100% 구축과 연동해 시민 보호뿐 아니라 도시시설물, 교통 등의 컨트롤에도 활용되는 ‘통합 스마트허브’로 기능하게 될 것”이라며 “이번 인증을 계기로 정보 활용만이 아닌 정보보호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도 더욱 힘쓸 것”이라고 말했다.

